

# 박인환 최초 발표작에 관한 재론

박성준(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사)

## 〈 목 차 〉

1. 문제제기
2. 「거리」 최초 발표설 재고찰
3. 「斷層」의 지위와 「不幸한 산송」으로의 개작
4. 결론

### 국문초록

그동안 박인환 연구는 과도한 감상주의나 피상적 정동, 우울, 허무주의와 같은 전후 모더니즘의 한계를 그대로 내재한 과도기적 경향으로 고찰되어왔다. 그의 초기 시는 대체로 ‘현실주의적 정치성’을 띠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정된 시기의 시적 변모를 근거로 박인환 시의 전체 특징을 판별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특정 사조의 맥락에서 검토하는 일 또한 지양해야 한다.

박인환 문학의 시기 구분에 있어서도 적절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던 점 또한 재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등단 시기를 특정하는 문제에서 ‘국제신보 발표설’과 ‘자유신문 발표설’을 비교하여, 초기 시의 범주를 확정할 필요성이 있다.

본고는 「거리」의 최초 발표설 재고찰하고, 「斷層」과 「不幸한 산송」 간의 비교 연구를 통해, 박인환의 시 세계 속에서 「거리」 및 「斷層」의 의미를 확보하려 한다. 박인환은 본인 스스로 「거리」를 등단작으로 동료 문인들에게 소개(맹문재 취재 기사)한 바 있다. 「斷層」의 경우 최초 발표작이기는 하지

만 『선시집』(산호장, 1955)에서는 초기 시의 범주로만 두었을 뿐, 개작을 통해 ‘최초 발표작’의 권능을 상실시켰다.

특히 개작 과정 중 7연 삭제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 요소의 감소를 주목해 보아야 한다. 「거리」에서도 시행 말미에 희망을 노래했듯이, 박인환의 초기 시는 절망과 우울뿐만이 아니라 도달할 수 없는 곳을 상징하고, 정작 그곳에 가지 못하는 시대의 ‘자유 정신’을 가시화했던 시편들이라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 박인환, 등단작, 「단층」, 「불행한 산송」, 「거리」, 시기구분론

## 1. 문제제기

그동안 박인환 연구는 “주로 사조적 관점에서 논의”<sup>1)</sup>되곤 했었다. 이러한 관행은 ‘후반기’ 동인 이후부터 타계까지, 줄곧 그의 시가 모더니즘을 지향했다는 오인에서 비롯된다. 향후 평가에서도 과도한 감상주의나 피상적 정동, 우울, 허무주의와 같은 전후 모더니즘의 한계를 그대로 내재한 과도기의 경향으로 그의 시를 취급하여, 재생산된 것이다. 하지만 근자에는 “비극적 시대 상황에 처한 지식인의 수동적인 감정”<sup>2)</sup>을 토로한 시인쯤으로 한정하여 평가했던 것을 지양하자는 논의들이 꾸준히 제출되고 있다.

가령 박인환 초기 시편에서 나타나는 현실주의나 탈식민주의, 동아시아 연대의식, 교양주의와 같은 고찰들<sup>3)</sup>이 그렇다. 이러한 논의 전개는 박인환

1) 최라영, 「박인환 시에 나타난 ‘시적 무의미’의 범주들과 그 특성」, 『한국시학연구』 54, 한국시학회, 2018, 156면.

2) 박지은, 「박인환 시의 불안, 죽음 의식과 이를 통한 시쓰기의 문제」, 『한국시학연구』 55, 한국시학회, 2018, 210면.

3) 이에 대표적인 논의들은 다음과 같다.

① 현실주의 : 공광규, 「전후 현실인식과 사실주의 창작방법 구현」, 『박인환 깊이 읽기』, 서경시학, 2006; 박찬일, 「현실주의자 박인환」, 『박인환 깊이 읽기』, 서경

사에서 간과되고 있었던 현실주의적 면모를 부각하고, 해방기 박인환의 시를 보다 입체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리고 『신시론』,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 ‘후반기’로 이어지는 해방기 에콜 운동의 자장 아래에서 이해된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해방기 신진 시인들의 시 운동인 新詩論의 전개 과정에 미친 박인환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그의 문학적 변모 양상을 규명”<sup>4)</sup>하려는 노력이 그렇다. 주지하듯 박인환은 ‘마리서사’를 통해 좌파 문인들과 교류하면서 동시대의 시인들보다 몇 해는 먼저 중앙 문단에 진출<sup>5)</sup>할 수 있었다. 그리고 조선문학가동맹 일원이었던 배인철 시인 살인 사건(1947. 5. 10)에 연루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내무부 치안국에 체포되었다가 가석방되는 과정(1949. 7. 16)을 거치면서, 박인환은 좌익계와 결별하고 전향 성명서를 발표(1949. 11. 30)한 바 있다. 이런 전기적 사실은 박인환의 시가 현실주의를 수용하고 결락했던 시적 지향의 변모 과정을 보충적으로 시사한다. 그러나 이렇게 한정된 시기의 시적 변모를 근거로 박

시학, 2006; 오문석, 「박인환의 산문정신」, 『박인환 깊이 읽기』, 서정시학, 2006.

- ② 탈식민주의, 동아시아 의식, 연대의식 : 맹문제, 「박인환의 전기 시작품에 나타난 동아시아 인식 고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8,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8; 박은지, 「해방기 ‘다른공간’의 의미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연대 가능성」, 『국어문학』 70, 국어문학회, 2019; 이기성, 「제국의 시선을 횡단하는 시 쓰기-박인환 시의 탈식민주의」, 『현대문학의연구』 34, 한국문학연구학회, 2008; 정영진, 「박인환 시의 탈식민주의 연구」, 『상허학보』 15, 상허학회, 2005.
- ③ 교양주의 : 박민규, 「문화, 교양, 자본 그리고 자유 : 초기 박인환의 이념적 모색과 시적 향방」, 『한민족문화연구』 61, 한민족문화학회, 2018; 박성준, 「해방기 박인환 시의 현실 인식 변모 양상- 「仁川港」, 「植民港의 밤」의 창작 배경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86,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20; 조영복, 「근대문학의 ‘도서관 환상’과 ‘책’의 숭배」, 『한국시학연구』 23, 한국시학회, 2008.
- 4) 엄동섭, 「해방기 박인환의 문학적 변모 양상」, 『어문론집』 36, 중앙어문학회, 2007, 220면.
- 5) “박인환에게 마리서사는 문단 진출의 발판이었던 것이다. …… 마리서사를 거점으로 하여 김광균이나 「기상도」의 시인과 같은 대가와 교류를 트고, 대부분 자기보다 5-6세 정도 연상인 문학 청년들을 한 패로 끌어모아 일종의 서클을 만들려고 한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훌륭하게 성공했던 셈이다.” 이동하, 『박인환 평전-木馬와 淑女와 별과 사랑』, 문학세계사, 1986, 23면.

인환 시의 특징을 판별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되며, 이런 판단을 토대로 특정 사조의 맥락에서 검토하는 일 또한 지양해야 한다. 즉 현실주의에서 모더니즘으로 급격히 경도되어 갔다는 기존의 평가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인환의 시를 보다 명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좌/우, 현실주의/모더니즘, 세계주의/서구주의 등 다양한 영향 관계<sup>6)</sup>를 동시에 해명해야 한다.

아울러 시기 구분에서도 적절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던 점 또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1946년부터 전쟁 직전, 후반기 동인의 중심적인 구성원으로 활동하던 1955년까지, 그리고 1955년 미국행 이후라는 세 시기”<sup>7)</sup>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 중론<sup>8)</sup>이지만, 경우의 따라 미국여행 시편을 독립적인 경향으로 간주하여, 초기·전후·미국여행·말기 4단계로 구분<sup>9)</sup>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구분론은 해방과 전쟁 같은 격동기를 겪어낸 박인환의 전기적 체함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보다는 동인지 활동과 시집 발간, 미국여행 등에 따른 시적 자아의 세계 인식 변모 양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대개는 전집 간행 편자에 의해 시기 구분이 진행되는 것이 관례이다. 하지만 박인환의 경우 사후부터 현재까지 전집 간행 과정을 4회<sup>10)</sup>에 걸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기 구분에 관한 합의

6) 박성준, 앞의 글, 67면 참조.

7) 박슬기, 「박인환 시에서의 우울과 시간의식」, 『한국시학연구』 33, 한국시학회, 2012, 221면.

8) 박슬기와 같은 맥락에서, 라기주는 “초기 시편(1946~1950)은 해방 전부터 6.25전쟁 이전까지, 중기시편(1950~1955)은 6.25전쟁부터 미국여행 이전까지, 후기 시편(1955~1956)은 미국 여행 이후부터 타계하기 전까지”(라기주, 「박인환 시에 나타난 불안의식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46,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5, 83면.)로 시기 구분을 하고 있다. 노승욱 또한 총 3기로 시기 구분을 하고 있으나 중기에 해당하는 시기를 “전쟁 발발 후부터 박인환선시집 이 출간까지를 포함하는 제2기”(노승욱, 「박인환 시에 나타난 도시적 서정성 연구」, 『도시인문학연구』 3(1),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2011, 204면)까지로 확장한다.

9) 박민수, 『한국현대시의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국학자료원, 1996, 212면 참조.

10) 『선시집』(산호장, 1955)의 증보 성격을 띤 『목마와 숙녀』(근역서재, 1976)를 제외하면 박인환 전집 간행 4회로 이루어졌다. 4권의 전집은 다음과 같다. 편저자 누락된 문학세계사판 ① 『박인환 전집』, 문학세계사, 1986. ② 문승묵, 『박인환 전

가 도출되지 않았던 점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리고 근작 전집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본과 이본의 비교 고찰과 그 협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때문에, 전집 구성 또한 발표 연보에 따른 연대기적 구성보다는 동인지 수록작과 시집 수록작, 그 외 발굴 작품을 나열하는 차원에서 갈 무리되고 있다.

시기 구분과 함께 대두되는 것은 박인환의 등단 시기를 특정하는 문제이다. 『국제신보』(1946. 12) 「거리」 발표설<sup>③</sup>에 관한 진위가 논란으로 제출되면서, 「斷層」 발굴 이전까지 최초 발표작에 관한 논의는 분분했다. 그러나 「斷層」 발굴 이후에도 「斷層」과 「不幸한 산송」이 서로 이본 관계라는 것을 고려하면, 「斷層」을 포함해 박인환의 초기 시편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논란의 여지는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덧붙여, 박인환 초기 시가 그의 생전 시집 『선시집』(산호장, 1955)에서는 대다수 배제되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박인환이 겪었던 사회·정치적 맥락을 검토해 보더라도, 박인환이 초기 현실주의적 시편들을 의도적으로 결락한 채 시집을 묶었다는 사실<sup>11)</sup>을 부정하기는 힘들다.

이에 본고는 박인환 최초 발표시에 관한 고찰을 통해, 박인환의 초기 시편 범주를 확정한다. 그동안 명징하게 해명되지 못한 「거리」에 관해서는 원전 재고찰 및 「국제신보 발표설」과 「자유신문 발표설」을 비교하여, 박인환 시세계 속에서 「거리」와 「斷層」의 의미에 관해 재검토하려 한다. 더불어 「斷層」의 이본 관계를 작품 차원에서 해석하여, 박인환 초기 시의 연속적 특징을 규명한다. 이를 통해 그간 박인환 시에서 확정되지 않았던 초기 시의 관해, 종전보다 명징하게 확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집- 사랑은 가고 과거는 남는 것』, 예옥, 2006. ③ 맹문재, 『박인환 전집』, 실천문학사, 2007. ④ 엄동섭·염철, 『박인환 문학 전집 1』, 소명출판사, 2015.

11) 박성준은 “「植民港의 밤」은 「仁川港」을 비롯해 「南風」, 「인도네시아 人民에게 주는 詩」 등에서 나타나는 탈식민주의나 동아시아 연대의식이 압축적으로 형상화된 것”(박성준, 앞의 글, 73면.)이라고 언술하면서, 초기 시를 의도적 배제했다기보다는 연속성의 관점으로 『선시집』에서의 현실주의 수용을 검토한다.

## 2. 「거리」 최초 발표설 재고찰

현재까지 논란을 지속하고 있지만, 발표작이든 창작 연대든 알려진 바에 따라 초기 시 범주에 해당하는 시편을 시집 순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목	최초 게재지면 및 게재일	비고
1	斷層	『순수시선』, 1946. 6. 20.	「不幸한 산송」 과 이본
2	거리	1946. 12. <sup>12)</sup>	창작일
3	仁川港	『신조선』 3호, 1947. 4. 20	
4	南風	『신천지』, 1947. 7. 1	
5	사랑의 Parabola	『새한민보』 11호, 1947. 10. 10	
6	나의生涯에 흐르는 時間들	『세계일보』, 1948. 1. 1	
7	인도네시아 人民에게 주는 詩	『신천지』, 1948. 2. 1	
8	地下室	『민성』, 1948. 3. 1	
9	쿨기-의 달밤	『신시론』 1집, 1948. 4. 20	
10	언덕	『자유신문』, 1948. 11. 25	동시(검토 필요)
11	田園詩秒	『부인』 17호, 1948. 12. 15	
12	일곱 개의 層階	1948 <sup>13)</sup>	김용성 연보 근거
13	列車	『개벽』 81호, 1949. 3. 25	
14	情神의 行方을 찾아	『민성』 1949. 3. 25	
15	1950년의 挽歌	『경향신문』, 1950. 5. 16	

이 중에서 박인환이 『선시집』에 수록한 작품은 「不幸한 산송」(「斷層」의 이본), 「사랑의 Parabola」, 「田園詩秒 1-5」뿐이다. 이는 모두 『선시집』에서는 4부에 해당하는 시편들로 시집에는 ‘抒情 또는 雜草’라는 소제목으로 범주화 되어 있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개인의 정서’와 ‘식물성’의 개념을 간과하더라도, 박인환은 『선시집』 말미에 본인이 초기 발표했던 시편들을 주로 편제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박인환이 시집 구성 과정에서 대다수 초기 시편을 수록하지 않았던 것은, 초기 좌파계열과 접촉한 이력을 삭제하려고 했을

12) 이는 20주기 기념시집 『목마와 숙녀』(근역서재, 1976)를 근거로 한다.

13) 본고에서 자료를 검토해 수합한 결과, 후술하겠지만 박인환 초기 시는 종전 14편이 아니라 「일곱 개의 層階」를 포함한 15편이다.

가능성이 크다. 「南風」, 「仁川港」 등 좌파계 시편들이나 과도한 시대적 우울감을 내재한 시편들은 시집 수록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종전의 최초 발표작으로 알려진 「거리」 또한 『선시집』에 수록되지 않았고, 추후 발굴된 「斷層」마저도 「不幸한 산송」으로 개작되었다는 점이다. (오인되어) 알려진 대로 「거리」는 『국제신보』 1946년 12월의 발표된 작품이고, 「斷層」이 『순수시선』, 1946년 6월 20일 낭송된 최초 작품이라면, 정치적 맥락과 무관한 두 작품이 『선시집』에서 배제되거나 축약되어 수록될 이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거리」 최초 발표설에 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제신문』의 전신인 『국제신보』는 1947년 9월 1일 『산업신문』이라는 제호로 창간되었다. 국제신보는 한국 전쟁 동안인 1950년 8월 19일 마준 제호이다. ……(중략)…… 이와 같은 사실로 볼 때 박인환의 등단 연도, 등단 매체, 등단 작품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거리」를 등단작으로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1946년에 존재하지 않는 『국제신보』를 등단 매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sup>14)</sup>

「거리」가 문헌에 처음 등장한 것은 박인환 사후 20주기를 주모하여 유족들이 엮은 『목마와 숙녀』(근역서재, 1976)에서이다. ……(중략)…… 「거리」가 실린 지면을 살펴보면, 작품 말미에 ‘一九四六年 十二月’만 표기되어 있을 뿐 발표지면 등 다른 사항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만약 게재가 함께 소개되었다면 ‘1946년 12월’은 발표연월로 보는 것이 맞지만, 작품 말미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이는 창작연월로 간주하는 것이 마땅하다. ……(중략)…… 『세월이 가면』(근역서재, 1982)의 작가 연보에서 ‘1946년 12월’이 창작 시기가 아닌 발표 시기로 바뀌게 된다. 그런 다음 박인환 30주기를 맞이하여 문학세계사에서 발행된 『박인환 전집』의 작가 연보를 통해 「거리」, 『국제신보』, 1946년 12월 발표설이 처음으로 대두되었다.<sup>15)</sup>

14) 맹문제 편, 『박인환 전집』, 실천문화사, 2007, 652-653면.

15) 엄동섭·엄철 편, 『박인환 문학 전집 1』, 소명출판사, 2015, 32-33면.

인용한 글은 ‘거리」 『국제신보』 발표설’에 관해 전집의 편자들이 의문을 제기한 부분이다. 맹문제는 1946년 12월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던 『국제신보』에서 시를 발표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엄동섭·염철은 ‘국제신보 발표설’이 왜곡 심화된 과정을 고찰했다.

그럼에도 이런 왜곡은 추후 논자들에 의해 매우 구체적인 방식으로 되풀이된다. 가령 평전 작업을 진행했던 논자들의 기록들이 그렇다. 이동하는 “그의 데뷔는 마리서사의 주인답게, 고객의 하나였던 宋志英과의 ‘안면’을 통해 이루어진다. 송지영이 주필로 있던 『국제신문』의 지면을 그는 마침내 얻어냈던 것이다. 1946년 12월, 이 신문에 작품 「거리」를 발표함으로써 그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시인이 된다.”<sup>16)</sup>라고 언술한다. 그리고 윤석산도 마찬가지다. “「마리서사」를 통해 시인, 예술가들과 교류를 시작한다. 1946년도 저무는 12월 송지영씨가 주필로 있는 국제신보에 「거리」라는 5연 24행의 시를 발표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 시단에 그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한다.”<sup>17)</sup>고 했다. 두 논자의 평전이 각각 1986년, 1983년에 출간된 것을 미루어보면, 모두 1982년에 출간된 『세월이 가면』(근역서재, 1982)의 연보<sup>18)</sup>를 참고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논자 모두, 송지영(1916~1989)이라는 구체적인 인물과의 교분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송지영이 『국제신보』, 『태양신문』에 주필 겸 편집장이 역임했던 당시는 1948년부터 1950년까지였다. 박인환과 송지영의 교분 관계는 박인환의 추모 및 회고담을 수록한 『세월이 가면』의 송지영의 산문 「방초 다시 푸르건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산문에서는 마리서사를 통해 교우했다는 것과 「세월이 가면」의 창작 배경만을 기술하고 있을 뿐, 박인환 등단에 대한 회고가 전혀 드러나지는 않는다.

16) 이동하, 앞의 책, 23-24면.

17) 윤석산, 『박인환 평전- 지금은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영학, 1983, 52면.

18) 연보에는 “1946년 (21 세) 시 「거리」 발표”(김광균 외, 『세월이 가면』, 근역서재, 1982, 280면)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책에 수록된 김차영의 산문 「박인환의 높은 시미학의 위치- 이상과 또 다른 모더니즘의 패턴」에서도 “그는 스물 한 살 때 (1946) 「거리」란 시를 발표한 일이 있다.”(김차영, 위의 책, 68면)는 회고기가 있다.

송지영의 주선으로 박인환이 「거리」를 『국제신보』에 발표한 것이 사실이라면, 회고담을 모으는 과정에서 송지영이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sup>19)</sup> 실제 송지영이 『국제신보』에 관여한 시기도 1948년부터이고, 맹문재의 문체 제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46년 12월에는 『국제신보』라는 신문 자체가 발행되지 않았다. 아울러 같은 책에 수록된 김차영의 산문에서도 『국제신보』를 특정하지 않고, “스물 한 살 때 (1946) 「거리」란 시를 발표한 일”이 있다고만 회고되고 있다. 다시 말해, ‘국제신보 발표설’은 문헌적 근거가 전혀 없는 가설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거리」의 서지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앞선 논자들은 『목마와 숙녀』(근역서재, 1976)의 ‘편집자 부기’를 신뢰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 박인환 사후 20주기 기념시집 『목마와 숙녀』는 박인환의 장남 박세형이 편집을 도맡은 시집이다. 이 시집은 박인환이 생전 출간한 『선시집』(산호장, 1955)에서 시 7편을 추보했다. 추보한 작품은 「거리」, 「地下室」, 「異國港口」, 「이 거리는 歡迎한다」, 「어떠한 날까지」, 「세월이 가면」, 「가을의 誘惑」 등이다. 이 7편 중에서 편집자의 부기가 있는 시편은 「거리」 말미의 ‘一九四六年 十二月’과 「어떠한 날까지」 말미의 ‘一九五二年 十一二〇日’뿐이다. 그리고 이 밖에 『선시집』에 이미 수록된 시를 『목마와 숙녀』에서 재수록하는 것임에도, 새로이 추보한 시편인 것처럼 굳이 날짜까지 부기해놓은 시편은 5편이다. 「일곱 개의 層階」(1949년), 「壁」(1952년 11월), 「살아 있는 것이 있다면」(1952년 1월), 「故郷에 가서」(1951년 8월 22일), 「信號彈」(1951년 3월) 등이 그것이다. 이 중 『선시집』 수록 외에 잡지 기발표작으로 알려진 작품은 「살아 있는 것이 있다면」과 「信號彈」 뿐<sup>20)</sup>이다. 이 두 작품의 기발표

19) 물론 송지영에게는 「세월이 가면」이 상송으로 탈바꿈되는 과정이 남달리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가령 그는 「명동의 상송」(『주간희망』 12호, 1956. 3.12)과 「세월이 가면, 명동 ‘상송’이 되기 까지」(『주간희망』 16호, 1956. 4. 3)과 같은 에세이를 통해 박인환의 유작시가 노래로 변주된 과정을 소개하는 글을 발표하기도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송지영이 박인환의 등단 과정까지 기여를 했다면 그 사안을 회고담에서 밝히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하기는 힘들다.

20) 즉 나머지 다른 작품들은 기발표 서지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지를 확인해서, 『목마와 숙녀』 부기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목	기발표 지면 서지	『목마와 숙녀』 부기
살아 있는 것이 있다면	『수험생』 2-3호, 1952. 11. 1	‘一九五二年 一月’
信號彈	『창궁』, 1952.5	‘一九五一年 三月’

표를 살펴보면, 기발표 서지보다 『목마와 숙녀』의 부기가 각각 10개월 가량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해진다. 『목마와 숙녀』를 편집한 장남 박세형은 박인환의 생전의 육필 원고를 토대로 해서, 사후 20주기 시집을 편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이 시집에서 굳이 부기가 된 날짜들은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박인환이 직접 창작 시기를 육필 원고에 기록해두었거나 적어도 시기 특징이 가능할 정도의 흔적을 남겨 놓았던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때문에 「거리」의 ‘一九四六年 十二月’ 또한 선행 논자의 견해처럼, (적어도) 창작 시기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거리」의 지위를 “『목마와 숙녀』에 처음 발표된 작품으로 간주하는 것이 마땅”<sup>21)</sup>할까. 여기서 필자는 ‘자유신문 발표설’ 또한 추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1) “그가 최초로 시를 발표한 것은 1946년께 자유신문 지상(인용자- 연보 확인 결과 해당 시는 「거리」<sup>22)</sup>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1947년을 전후하여 자유신문 기자로 근무하면서부터 1955년까지 경향신문, 평화신문 등 사회부, 문화부 기자생활을 하였다.”<sup>23)</sup>

(2) “그 당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던 「조선문학가동맹」과 「전 조선문필가협회」, 「조선청년문학가협회」 등 많은 문단 파벌과 이데올로기의 싸움 등에

21) 엄동섭·염철, 앞의 책, 34면.

22) 김용성의 연보에서 “1946년 (20세) 시 「거리」 등 발표”라 기록하고 있다. 즉 현재 가장 오래된 자료에서 박인환의 등단시를 1946년 『자유신문』지의 「거리」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23) 김용성, 「박인환」, 『한국현대문학사탐방』(재판), 국학자료원, 2011, 594면.

말리지 않았던 박인환은 초연한 자세로 오로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시를 쓸 수 있을 것인가에만 골몰하여 열심히 책을 읽고 시를 쓰고 친구를 만났다./ 1946년 「거리」라는 시를 『자유신문』에 발표하면서 박인환의 시인으로서의 생활은 시작된다.”<sup>24)</sup>

(3) “『목마와 숙녀』보다 1년 정도 빠른 시기인 1975년 4월 20일에 간행된 『세계문예대상전』(문덕수 편)에도 「거리」의 발표 연도가 1946년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작품이 1946년에 발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듯하다.”<sup>25)</sup>

인용한 (1)과 (2)는 각각 시기적으로 1973년<sup>26)</sup>, 1983년에 채록 및 기술한 자료이다. 즉 인용 (1)의 경우, 『목마와 숙녀』(근역서재, 1976)보다 3년이나 앞선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인용 (3)보다도 2년이 앞선 자료이다. 우선 인용 (3)의 경우도 전집 편자 중 한 명인 염철이 문덕수의 편지를 사료로 해서, “「거리」가 1946년에 발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그뿐만 아니라 박인환 사후 첫 평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강계순의 논의 (2)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회고·연구 자료인 김용성의 (1)이 박인환의 최초 발표시가 『국제신보』가 아닌 『자유신문』이라고 기술하고 있다는 것<sup>27)</sup>이다. 게다가 (2)의 평전에서 -시기적으로는 상대적으로 근작에 해당하지만- 『자유신문』 발표라는 언표를 되풀이한다는 점은 ‘국

24) 강계순, 『아! 박인환』, 문학예술사, 1983, 34면.

25) 염철, 「박인환의 최초 발표작 「斷層」에 대하여」, 『우리문학연구』 40, 우리문학회, 2013, 529-530면.

26) 본고에서는 국학자료원판 재판된 자료를 기초로 하지만, 김용성의 논의는 각 시인, 작가마다 실제 유족과 지인 등을 취재를 통해 취합한 자료임으로 자료를 수집한 시기에 주목해야한다. 실제 박인환 자료를 수집한 시점은 “도움 주신 분들(1973년 현재)”(김용성, 앞의 책, 598면)로 기술한 것으로 보아, 1973년에 자료 채록을 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27) 김용성의 논고에서 취재 대상이었던 인물은 부친 박광선(당시 73세), 모친 감숙정(당시 72세), 미망인 이정숙(당시 47세), 친구 이진섭(극작가, 당시 51세), 친구 조병화(시인, 당시 52세), 처사촌 이석희(당시 48세) 등이 있다.

제신보 발표설'만큼이나 '자유신문 발표설'이 주요 논제라는 방증이 된다. 그러나 '자유신문 발표설'은 지금까지 검토된 바가 없다.

김용성이 유족들과 지인들을 취재해서 정리한 연보 및 논의를 검토해 본 결과, 『자유신문』 발표'를 제외하고 이전 자료들과 차별점이 보지는 않는다. 이는 지극히 유족의 입장을 반영한 논고라는 점에서 신빙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별개로 박인환 연구에서 공백으로 남았거나, 그간 제반 문제들을 정치하게 논의하지 못하고 대략적으로 수렴했던 부분들에 관해 다시 고찰해볼 만한 계기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sup>28)</sup> 우선은 이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루고, '자유신문 발표설'에 관해 필자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자유신문』에서는 해방공간에 총 23회 시를 게재<sup>29)</sup>한 기록이 있다.

28) 이뿐만이 아니라, 김용성의 취재 연보에는 발표 시기가 아직 특정되지 않은 발표 시기가 언급된다. 물론 이는 증언에 의한 사료로,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표 시기인지, 창작시기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고, 창작시기로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합당하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일곱 개의 층계」(1948) 「1953년 여자들에게」, 「유엔군을 환영하는 노래」(1950), 「고향에 가서」(1951) 등이다. 여기서 「유엔군을 환영하는 노래」라는 제목의 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추론컨대 이는 『목마와 숙녀』에 추보된 「이 거리를 환영한다- 반공청년에게 주는 노래」의 초고였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김용성의 취재 기록은 유족에 의존한 논의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다만, 「고향에 가서」의 창작일은 『목마와 숙녀』의 부기와 동일하게 기술된 반면, 「살아 있는 것이 있다면」은 실제 발표 시기와 지면은 『수협생』(1952. 11. 1)이지만 『목마와 숙녀』에는 '1952년 1월'로 부기되어 있고, 김용성 취재에서는 '1951년'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이 다르다. 그리고 1947년 발표작으로 기술된 「군상」이라는 작품은 아직 박인환 시에서 미발굴된 채 제목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9) 이 시기 『자유신문』에서 게재한 시편은 총 23편이다. 1945년 10월 15일 朴鍾和, 「지도자에」를 비롯해서, 林學洙의 「새날 맞음」, 李庸岳의 「하나씩의 별」, 金起林 「우리들의 8월로 돌아가자」, 李陸史의 「曠野(遺稿)」, 朴山雲의 「거울같이 아는 일 읊」, 李相魯의 「인경아 울어라」, 趙虛林의 「자유 不然이면 죽음을」, 金容浩의 「絶頂 위에서」, 朴鍾和의 「痛哭」, 薛貞植의 「寓話」, 權煥의 「부서러 파쇼를」, 林和의 「招魂」, 金東錫의 「나는 울었다 학병 영전에서」, 安懷南의 「동무와 함께」, 林和의 「3월 1일이 온다」, 薛貞植의 「피수레」, 金東錫의 「산」, 金尙勳의 「메이데이의 노래」, 朴世永의 「새 옷을 입으려다」, 金哲洙의 「전쟁과 5월과 보리밭」, 張瑞彦의 「우리 다시 한 잔」, 薛貞植의 「영혼」 등이 게재돼 있다. 『자유신문』은 1945. 10. 15에서부터 1947. 01. 05까지 23편의 시편에 지면을 내주었지만, 여기서

그러나 여기서 박인환의 「거리」가 발표된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 이 또한 명확한 사료가 없는 주장이다. 박인환 「거리」의 「자유신문 발표설」은 취재 과정 중 오기되거나 유족이나 지인들이 잘못 증언했던 것이다.

『자유신문』 자료를 검토해보면, 박인환은 1948년 11월 25일에 동시 「언덕」을 『자유신문』에 발표한 것이 전부이다. 이 작품은 문승묵 편 전집에서 처음 후보된 바 있다. 그런데 여기서 「언덕」 발표에 대한 의구심도 품어볼 여지가 있다. 「언덕」은 해방 이전 박인환 시편 중 이례적인 작품이다. 박인환의 시 중 동시가 『자유신문』에 발표한 「언덕」 단 1편이라는 것이다. 이 작품을 박인환이 자의적으로 발표한 것일까. 우선 자신이 근무하던 신문사에서 자신의 시적 지향하고는 매우 동떨어진 ‘동시’ 형식으로 시 발표를 했다는 것에 의구심을 품어 볼 수 있다. 물론 「언덕」은 박인환(朴寅煥)이라는 이름으로 한자 표기까지 동일하게 되어 있다.<sup>30)</sup> ‘동일한 이름’, ‘근무했던 신문사’라는 근거가 동시 「언덕」을 박인환 작품으로 확정되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언덕」 발표를 근거로 해서 “자유신문사 입사 시기는 1948년 11월 이전으로 추정”<sup>31)</sup>한다는 견해를 피력하는 것은 재고해볼 만한 부분이다. 동시 「언덕」은 박인환의 작품이 맞다고 판단할 충분한 근거도 없지만, 아니라고 판단한 충분한 근거 또한 없다. 『자유신문』은 1948년 11월 18일부터 1949년 8월 19일까지 총 13차례 ‘어린이특집’을 기획하는데 이 중 2회차에 박인환의 「언덕」이 발표됐다. 그리고 이후 기획에서도 수록된 작품은 모두 기성이 아닌 학생 작품<sup>32)</sup>이었다. 박인환이 발표한 것으로 기록된 11월 25일자 신문에도 학생 작품이 같이 수록된다. 그러니 ‘어린이특집’을 기획할 때 첫 회에 막 입사했다

---

박인환의 시를 찾을 수는 없었다. 다만 1948년 11월 25일자에 박인환이 기자로 활동하던 시절 동시 「언덕」을 발표한 사료는 있다.

30) 동시 「언덕」은 문승묵 편 『박인환 전집』에서 최초 발굴되었다.

31) 엄동섭·염철, 앞의 책, 433면; “박인환은 『자유신문』에 「언덕」(1948. 12. 25)를 잇달아 게재한 바 있다”는 근거로 근무 시기를 특정한다.

32) 『자유신문』 지면에 수록된 ‘동시’는 꼭지를 단 작품은 「나뭇잎」(1948. 12. 01), 「조각구름」(1949. 01. 12), 「파리입」(1949. 01. 12)으로 모두 학생 작품이다. 그러나 같은 기획에서 ‘동시초’, ‘동요’, ‘작문’ 등의 이름을 단 꼭지로 동시 형식의 글은 매 회차 발표되었다.

고 예상할 수 있는 ‘박인환 기자’에게 데스크가 동시를 부탁해 지면을 채워달라고 했다가에는 추론과 과정을 몇 차례 거듭해야 가능한 일이다.

정리하자면, 「거리」 ‘자유신문 발표설’은 ‘국제신보 발표설’처럼 명확한 근거가 없는 취재 과정에 따른 오기·오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유신문』 기자 시기, 중군 기자 활동 시기, 송지영 『국제신보』 주필(1948) 활동 시기 등 등 현재까지 제기된 모든 「거리」 발표설에 대한 논의는 등단 과정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덧붙이자면, “김규동 시인 등 생전의 박인환 시인과 친분이 깊었던 원로문인들에 따르면 ‘1946년 부산의 국제신보로 등단했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자타가 인정해 정설로 여겨져왔다.”(맹문재)<sup>33)</sup>라는 회고를 참고해볼 만하다. 박인환은 당대 동료 문인과 예술가, 편집·언론인들에게 자기 스스로 등단 사항을 정설로까지 여기게끔 ‘국제신보 발표설’을 그 스스로 언술했던 것이다. 여기서 이 모든 오해들이 비롯되고 재생산된 것이라고 추론<sup>34)</sup>할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이 증언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 3. 「斷層」의 지위와 「不幸한 산송」으로의 개작

앞선 고찰을 통해서도 드러나듯, 박인환 본인 스스로가 밝힌 등단 지면이 『국제신보』인지 『자유신문』인지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유족의 증언과 원로문인들의 정설로 전해진 내용에 부합해보면, 박인환은 자신의 등단작을 「거리」로 알려왔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최근 발굴된 「斷層」은 ‘박인환의

33) 조봉건, “故박인환 시인 등단경로 재조명 돼야” …맹문재 시인 자신의 책서 주장, 『국제신문』, 2008. 03. 25.

34) 이는 박인환이 스스로가 자신이 등단이 『국제신보』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언행(조봉건, 위의 기사, 19면 참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종로·명동 시절과 ‘마리서사’ 경영을 통해 드러났던 그의 독서 취미, 문학적 포즈 등을 종합해볼 때, 당대 박인환의 기질에 매료된 상당수의 동료 문인들은 그의 말을 여과 없이 믿어왔던 것으로 추측된다.

최초 발표작'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작품을 박인환의 등단작이라고 보는 것도 가능”<sup>35)</sup>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斷層』은 1946년 6월 20일 오후 6시 조선기독교청년회관에서 열린 ‘예술의 밤’ 행사<sup>36)</sup>에서 낭독시 형태로 발표된 시이다. “행사의 입장권으로는 당일 낭독할 시들이 실린 『純粹詩選』”<sup>37)</sup>이 판매되었다. 『純粹詩選』 표지에는 “藝術의 밤 朗讀詩集”이라는 부기와 함께 “八月詩會”와 “青年文學家協會詩部”가 기재되어 있다. 여기서 청년문학가협회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조선청년문학가협회’는 좌익계인 ‘조선문학가동맹’에 대항하는 단체로, ‘전조선문필가협회’와 ‘중앙문화협회’와 함께 해방기 우익진영을 대표했던 단체이기도 했다. 1946년 3월 ‘전조선문필가협회’ 결성 이후, 그해 4월 조연현, 김동리, 서정주 등은 문필가협회의 구성이 학계·언론계를 모두 포함하는 단체라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구체적인 문학 활동과 운동성을 내장한 단체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조선청년문학가협회’를 발족했다. 청년문협에서는 의도적으로 1930년대 순수문학의 전통을 잇는 정신을 표방하는 한편, 이듬해 ‘문총’(총칭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1947년 2월 결성)으로 발전적 해체가 되기까지 젊은 문인들 중심으로 분야별 보고 및 강연 활동을 이어나갔다. 예술의 밤 행사 또한 이런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박인환은 이 시기 마리서사를 경영(1945년 말에서 1948년 봄)하며, “좌·우의 구별이 없던, 몽마르뜨 같은 분위기”<sup>38)</sup>를 만들어낸 것으로 회고된다. 향후, “1947년 7월경 ‘마리서사’가 좌익전문 출판사인 노동사(勞農社)의 총판

35) 염철, 앞의 글, 533면.

36) 예술의 밤 행사는 ‘팔월시회’와 ‘청년문학가협회 시부’가 공동 주관하고, 기사문에서 “白潮時代 以來의 詩壇 樂壇의 權威總網羅”와 같은 수사가 붙은 규모 있는 낭독회였다. 시단에서는 ‘박월탄, 양주동, 오상순, 조운, 변영로, 김영랑, 김광섭, 정지용, 이병기, 이하운, 김달진, 유치환, 서정주, 신석초, 윤태웅, 박두진, 박목월, 조지훈, 이한직, 김수돈, 조연현, 이정호, 조인행, 송돈식, 이상로, 박인환, 모윤숙, 김오남’이 참여했고, 악단에서는 ‘김형로, 안병소, 김순애, 김자경, 경기여고 합창단’이 참여했다.(『藝術의밤』 開催, 『동아일보』 1946. 6. 15)

37) 염철, 앞의 글, 530면; 『純粹詩選』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염철 논문 참조.

38) 김수영, 「마리서사」, 『김수영 전집2』, 민음사, 1981, 74면.

매소 역할<sup>39)</sup>을 했다는 점에서 좌익계와 접촉이 잦아지면서, 급격하게 정치적 현실주의가 그의 시편에 영향을 주기는 했지만, 이런 현실주의적 경향은 한시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보다는 ‘좌익도 우익도 아닌’ “도시적이며, 감각적이며, 코스모폴리턴적<sup>40)</sup> 특징을 가진 “문화적 중간과<sup>41)</sup> 시인이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우익계 순수문학 경향이 짙었던 ‘예술의 밤’ 행사에도 이름을 등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박인환은 당시 20세로 어떻게 기성 문인들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 명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낭독회에서 참여했던 문인 중 『시인부락』, 『자오선』 동인이었던 이봉구의 소개<sup>42)</sup>였을 가능성이 있다. 낭독회에는 이봉구와 동인을 했던 서정주, 신석초가 함께했고, 이들은 김광균, 오장환과도 함께 동인 활동을 해온 문인들이다. 김광균은 박인환이 마리서사 경영 당시 “그가 쓴 시 몇 편을 읽어 보고, 그의 시는 앞으로 모더니즘 테두리 안에서 다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고…… 나도 여기저기 이야기 하여 주어 한 두편씩 발표를 시작”<sup>43)</sup>했다고 회고하고 있다. 오장환의 경우 주지하듯 박인환이 ‘마리서사’를 운영하게 된 계기와도 관련이 깊다.<sup>44)</sup> 오장환이 ‘남만서점’을 경영했듯 박인환에게는 ‘마

39) 정우택, 「해방기 박인환 시의 정치적 아우라와 진항의 반항」, 『반교어문연구』 32, 반교어문학회, 2012, 293면.

40) 조병화, 「나를 부르는 소리」, 『박인환 전집』, 문학세계사, 1986, 225면; 조병화는 박인환과 첫 만남을 자신의 첫 시집 『버리고 싶은 유산』 출판기념회로 회고한다. 조병화는 이곳에서 김기림, 김광균, 양병식, 이봉구, 장만영, 박인환을 만났다. 이에 조병화는 “이 인물들이 소위 한국 시단의 모더니즘의 기수(旗手)들이었던 것이다./ 이들은 좌익계의 문인들도 아니며, 우익계의 문인들도 아니었다. …… 무언가 새로운 세계를 항상 그리워하며 보다 세계적인, 보다 국제적인, 보다 인류적인 것에 대한 뜨거운 실존적 향수에 젖어 한국적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던 그룹이었다. 이들은 아무런 문학단체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있었다.”고 언술한다. 이때 조병화는 박인환을 만났고, 박인환의 소개로 향후 김수영, 박태진, 진봉래, 김광주와 교우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41) 정우택, 앞의 글, 316면.

42) 엄철, 앞의 글, 538면.

43) 김광균, 「마리서사 주변」, 『세월이 가면』, 근역서재, 1982, 139면.

44) 양병식은 박인환이 마리서사 경영 이전부터 오장환과 교우했다는 증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내가 해방된 다음에 해외에서 돌아와서 맨 먼저 김기림씨를 찾았

리서사'가 있었다. 그러나 해금 이전까지 오장환과 박인환의 영향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논자들이 『성벽』을 간행했던 오씨 시인' 정도로 매우 한정적인 언급을 할 수밖에 없었다. 김광균 또한 이 시기에는 문학가동맹의 일원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김광균, 오장환, 이봉구 등의 직접적인 주선보다는 그들의 소개로 만난 다른 문인(신석초, 서정주 등)을 통해 예술의 밤 낭독회에 참여했던 것으로 추론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미루어보아, 박인환에게 『斷層』의 지위와 문학적 의미를 정리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박인환은 '마리서사' 경영 초기, 적어도 '예술의 밤' 개최 시기까지는 좌우의 구별 없이 여러 문인과 교우 관계를 맺고 있었다. 때문에 순수문학을 지향했던 우익계 청년 문인들의 문학 행사까지 여러 소개를 거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만 『斷層』이 낭독시집에 수록된 비정기적 간행물이었다는 점과 행사 당시 입장권으로 사용될 정도로 한시적인 유통 과정으로 소비된 작품이라는 점을 상기해보아야 한다. 『斷層』이 최초 발표작의 지위는 가질 수 있되, '등단작'이라 평가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인 것이다. 게다가 『斷層』은 『선시집』 간행 과정에서 「不幸한 산송」으로 수정을 거쳤고, 해방공간에서 간행된 『신시론』(1집),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2집)에도 재수록되지 않는다. 즉 박인환은 『斷層』의 의미 부여를 축소했던 것이다. 물론 이런 연유는 『신시론』 1집과 2집의 경우 현실주의적 경향의 시인들이 주를 이룬 구성이었다는 것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週刊國際』나 『시와 비평』, 『新詩學』 거점으로 후반기 동인 활동을 진행했을 당시에 한시적으로 소비될 수밖에 없었던 『斷層』을 수정하거나 재발표하는 기록은 없다.<sup>45)</sup> 다시 말해 『斷層』은 도시적 불안과 우울감, 허무주의적 태도를 내재했음에도 박인환은 상대적으로 그 작품을 살

---

다. 여기서 비로소 김광균, 설정석, 김병욱, 박인환 시인을 알게 됐고 그 당시 안국동에서 서점을 경영하고 있던 오장환을 박인환이 소개해 주어서 알게 되었다.”(양병식, 위의 책, 93면.)

45) 예컨대 유사한 시기 발표된 「列車」, 「回想的 긴 계곡」, 「最後의 會話」, 「검은 神이여」, 「終末」, 「未來의 娼婦- 새로운 神에게」와 같은 우울감과 불안을 내재한 시편들은 재수록과 개작을 거듭하며, 박인환은 자신의 작품을 줄곧 살핀다.

피지 않았던 것이다. 박인환 스스로가 「거리」를 발표 지면까지 은폐하면서 동료 문인들에게 등단작으로 언급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박인환 본인에게 「斷層」의 지위는 출세작은 분명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斷層」은 낭독회에 참여한 순수문학 지향 문인들의 시와도 매우 이질적인 경향을 보인다. 우선 박인환은 낭독회에서 새로운 경향의 낯선 시로 장중 주목을 받고자 했을 가능성이 크다. 시편 안에서 사용된 다양한 외래어만 살펴보아도 그렇다.

産業銀行 유리窓 밑으로  
大陸의 市民이 푸르므나-드하든  
지난해 겨울

戰爭을 피해온 女人은  
銃소리가 들리지않은 過去를  
受胎하며 뛰어다녔다.

暴風の Muse는 燈火管制속에  
고요히 잠들고  
이 밤 大陸은 한개 果實같이  
大理石우에 떠러졌다.

깃뻐한 나의 優越感이여  
市民들은 한사람한사람이 Demosthenes  
政治의 演出家는 逃亡한 Arlequin을 찾으려 도라다닌다.

市長의 調馬師는  
밤에 가장 가까운 저녁때  
雄鷄가 노래하는 Bluse에 化合되여  
平行面體의 都市計劃을  
Cosmos가 피는 寒村으로 案内하였다.

衣裳店에 神化한 Mannequin  
 저 汽笛은 Express for Mukden  
 Marronnier는 蒼空에 凍結되었다.  
 汽笛같이 사라지는 女人의 그림자는  
 香氣로운 Jasmin의 香氣를 남겨놓았다.

城壁인양 잠들은 大陸의 王者여<sup>46)</sup>  
 꿈을 모르는 부형이처럼  
 女人은 고요히 고요히 몸섰다.

— 「斷層」 전문<sup>47)</sup>

「斷層」에서 기표 상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외래어 사용이 남발되는 것은 물론이고 알파벳을 직접 노출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의 초기 시가 직접 체험보다는 서구 서적 독서를 통해 유입된 추체험에서 비롯된 결과<sup>48)</sup>라

46) 「不幸한 산송」은 표기법과 연행 구성의 차이는 있으나 「斷層」에서 7연의 삭제된 형태로 내용상의 큰 차이는 없다. 박인환이 최종 개작을 마친 「不幸한 산송」을 정본으로 보는 것이 맞으나, 본고에서는 내용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斷層」을 인용한다. 『선시집』에 수록된 「不幸한 산송」 원문은 다음과 같다. 이본 간 표기 차이에 관한 구체적인 논고는 엄철, 535면 표 참조.

産業銀行 유리窓 밑으로/ 大陸의 市民이 푸르므나아드하던 지난 해 겨울/ 戰爭을 피해온 女人은/ 銃소리가 들리지 않는 過去로/ 受胎하며 뛰어 다녔다. // 暴風の 뮤스는 燈火管制 속에/ 고요히 잠 들고/ 이 밤 大陸은 한개 果實처럼/ 大理石 위에 떨어졌다.// 짓밟힌 나의 優越感이여/ 市民들은 한사람 한사람이 「데모스테테네스」/ 政治의 演出家は 逃亡한/ 아르르강을 찾으러 돌아다닌다.// 市長의 調馬師는/ 밤에 가장 가까운 저녁때/ 雄鷄가 노래하는 브루우스에 化合되어/ 平行 面體의 都市計劃을/ 코스모스가 피는 寒村으로 案内하였다.// 衣裳店에 神化한 마네킹/ 저 汽笛은 Express for Mukden/ 마로니에는 蒼空에 凍結되고/ 汽笛처럼 사라지는 女人의 그림자는/ 짜스민의 香氣를 남겨 주었다.

47) 『純粹詩選』, 八月詩會·青年文學家協會詩部, 1946, 17-18면.

48) 이와 관계되어 「박인환은 복층적 교양·지성의 시각으로 세계를 인식하고 비전화하려고 했다. …… 김수영과는 정반대적 입장에서 문화와 지식을 향유하는 세대론적 귀족·지성주의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추체험을 통해 세계사적 동시성을

고 볼 수 있다. 우선 시행을 하나하나 따라가며, 박인환 시를 분석하는 일반론적 관점에서 독해해보자.

기표 상의 문제로 의미 지연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이 시 전체의 의미를 조직하는 시적 대상은 “戰爭을 피해온 女人”이다. 1연에서 시적 화자는 “産業銀行 유리窓 밑으로” 행진하는 “大陸의 市民”을 떠올리다가, 2연에서는 “戰爭을 피해온 女人”을 떠올린다. 2연에서 등장하는 이 여인은 해석에 따라, 전쟁으로 아이를 잃고 아이 대신 과거를 수태라도 한 것처럼 광인(狂人) 같이 뛰어다니는 모습으로 묘사된 듯도 하고, 총소리가 들리지 않는 과거에 얽매어 현실과 부조화된 상태로 묘사된 듯도 하다. 분명한 것은 지난 해 겨울 대륙 시민의 행진 장면이 맺혔던 유리창에, 현재에는 낫을 놓은 여인이 뛰어다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도 역시 여전히 전쟁 중이다. 3연에서 “燈火管制”나 “이 밤 大陸은 한개 果實같이/ 大理石우에 떠러졌다.”와 같은 구절로 미루어보아 전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생명력을 상실하고 과실처럼 떨어지는 이 세계(전쟁)에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4연에서처럼 나의 우월감은 짓밟힌 것이다. 시민들은 고대 그리스 데모스테네스(Demosthenes)처럼 저마다 열정과 욕망, 대의들로 가득 차 있으나 현실은 그들을 “政治의 演出家”쯤으로 취급할 뿐이다. 게다가 시민들이 품고 있었던 ‘정치적 대의’나 ‘전망’마저도 전쟁으로 인해 정합에 이르지 못한다. ‘아를갱(Arlequin)’풍의 불규칙한 빛에 매료된 듯 그들의 전망은 무력해져 버린다. 즉 전쟁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이 삶의 불안과 불연속성에 대해 견지하고 있으며, 목표나 목적 없이 그저 허무하게 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런 불안과 허무감이 전쟁 때문만일까. 5연에서는 전쟁보다 문명 차원에서 인간이 겪는 무지함을 형상화한다. “平行面體의 都市計劃을/

---

감지해낸 전후 세대의 독특한 미적 풍토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박성준, 앞의 글, 67면)와 같은 견해나, “해방기에 쓴 시들이 대부분 박인환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염철, 앞의 글, 544면) 등의 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smos가 피는 寒村”까지 점령시키는 문명 세계의 개발 전개는 전쟁만큼이나 폭력적이다. 그러나 “市長의 調馬師”는 기계화되고 자동화된 삶에서 사라질 직업군이 될 듯 보인다. 그러나 “調馬師”는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한다. “밤에 가장 가까운 저녁때”에도 수탉(“雄鷄”)과 블루스를 춤 궁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6연에서는 굳어 있는 인간인 듯한 마네킹(“衣裳店에 神化한 Mannequin”)과 죽은 마로니에 나무(“Marronnier는 蒼空에 凍結”)를 등장시켜 죽음을 내재하고 있는 세계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더 고조시키고 있다. 제목에서처럼 지각이 끊어지듯, 죽음의식을 통해 어긋난 세계의 불연속성을 극대화<sup>49)</sup>한 것이다.

그렇다면 『斷層』은 이렇게 전쟁, 문명에 대한 우울감만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일까. 『선시집』에 『斷層』이 「不幸한 산송」으로 수정되면서 가장 특수하게 달라진 점은 『斷層』의 7연이 통째로 사라진 것이다. 물론 연과 행같이 차원의 수정이나 외래어를 알파벳 직접 표기가 아닌 한글 외래어 표기로 바꾼 부분들이 상당수 있지만<sup>50)</sup>, 내용 차원에서는 7연 삭제 외에 큰 변화는 없다. 시 초반에 등장했던 녀를 놓은 여인의 존재가 「不幸한 산송」에서는 “女人의 그림자는/ 香氣로운 Jasmin의 香氣를 남겨놓았다.”고 6연으로 종결되는 반면, 『斷層』에서는 “大陸의 王者여”라는 존재를 호명하고 난 후, “꿈을 모르는 부형이처럼/ 女人은 고요히 고요히 몸섰다.”라는 종결을 하고 있다. 7연에 표현된 “城壁인양 잠들은”과 같은 수사나 “고요히 고요히 몸섰다.”는 여인에 관한 표현은 6연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굳어 있는 이미지’들과 같은 의미역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모두 죽음의 인상을 주는 것이다. “꿈을 모르는 부형이” 또한 앞선 내용에서 반복되고 있는 희망 없음의 의미를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개작 과정에서 7연을 삭제한 「不幸한 산송」은 전작인 『斷層』보다 시적 화자의 불안감 줄여놓은 형태라고 볼만하다.

49) 논자에 따라 ‘단층’을 “독일 패망 후의 세계사적 급변과 관계되는 용어”(박민규, 앞의 글, 103면)나 “해방기의 혼란한 시대상을 상징”(엄철, 앞의 글, 536면)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50) 『斷層』과 「不幸한 산송」의 표기법상 차이는 엄동섭·엄철, 앞의 책, 249-250면 참조.

그뿐만이 아니다. 하강 정동을 드러냄과 동시에, 역설적이게도 희망과 동경의 기표가 함께 동원되고 있다는 점은 종전 최초 작품이라고 알려진 「거리」와도 연계<sup>51)</sup>되는 지점이다. 일반적으로 박인환 시에서 우울, 불안, 무기력 등을 읽어내는 관행적 독서를 지양해보자는 것이다. 가령, ① 창문 밖으로 냇을 놓고 뛰어다니던 여인이 사라진 모습을 “香氣로운 Jasmin의 香氣”로 묘사한다든가, ② 전쟁을 겪고 있는 대륙의 시민들을 절망 속에서도 걸기를 품고 있는 ‘데모스테네스’로 형상화하는 지점, ③ “調馬師”가 수탉 울음소리와 함께 블루스를 추는 새 아침의 희망을 갈망하는 부분들이 그렇다. 모두 ‘지금 여기’의 참상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않거나, 냇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주체들이지만, 실상은 주어진 세계에서 더 나은 세계에 대한 동경을 품고 있는 주체들인 것이다. ④ ‘아를캥’을 찾으러 다니는 시민들의 모습마저도 패션에도 조예가 깊었던 박인환의 기질을 고려해보면, ‘단색의 삶’이 아닌 여러 가지 색의 천을 능형으로 이어 맞춘 ‘다채의 삶’을 지향하려고 하는 시적 화자의 의지로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무기력한 삶 속에서도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망과 희망을 노래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정동은 훗날 박인환이 표현한 대로, “純粹한 本能과 體驗을 통해 본 不安과 希望의 두 世界에서 어떠한것을 써야하는가를 항상 생각하<sup>52)</sup>는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거니와, “地球의 市民/ 冷酷한 資本의 權限에 시달려/ 또 다시 自由 精神의 行方을 찾아”(「情神의 行方을 찾아」)가려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詩를 쓴다는 것은 내가 社會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依支할수 있는 마지막 것이 였다.”<sup>53)</sup>는 진술처럼, 박인환은 초기 시부터 세계와 세계에 대한 응전 의식을 강하게 내장하고 있었다. 아울러

51) 「거리」 또한 우울감이 내재한 시편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거리」시 “望遠鏡으로 보던 千萬의 微笑를 灰色 외투에/ 싸아 얼은 크리스마스의 밤길을 걸어 보내자”와 같은 구절은 시적 화자의 희망을 가시화하고 있는 언표이다. 박민규 또한 「거리」 중결부의 의미를 “슬픔을 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려는 의지로 끝맺고 있다.”(박민규, 앞의 글, 105면)고 평가한다.

52) 「후기」, 『선시집』, 산호장, 1955, 239면.

53) 위의 글, 238면.

초기 시편 속에서 다다를 수 없는 동경의 세계를 곳곳에 설정해 놓음으로써, 현실을 재인식하려고 애썼다. 즉 「仁川港」, 「인도네시아 人民에게 주는 詩」, 「南風」과 같은 좌파계 현실주의의 영향을 받은 시편뿐만이 아니라, 박인환은 초기 시부터 시적 화자를 과도한 허무주의나 무력감, 포기의 정동으로 경도 되게만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외연에는 새 시대의 희망 노래하기 위한 예비적 전망을 품는 주체가 특성화되어 있다.

#### 4. 결론

그동안 박인환 연구는 과도한 감상주의나 피상적 정동, 우울, 허무주의와 같은 전후 모더니즘의 한계를 그대로 내재한 과도기적 경향으로 고찰되어왔다. 초기 시는 대체로 ‘현실주의적 정치성’을 띠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정된 시기의 시적 변모를 근거로 박인환 시의 전체 특징을 판별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특정 사조의 맥락에서 검토하는 일 또한 지양해야 한다.

박인환 문학의 시기 구분 있어서도 적절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던 점 또한 재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등단 시기를 특정하는 문제에서 ‘국제신보 발표설’과 ‘자유신문 발표설’을 비교하여, 초기 시의 범주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유족이나 동료 문인의 취재를 바탕으로 한 김용성의 연구를 경유해보면, 박인환의 초기 시는 15편으로 확장해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일곱 개의 層階」의 경우, 초기 작품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아직 서지 정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초기 시와의 세계관의 친연성이나 유족의 증언을 고려할 때 1948년 발표작으로 「일곱 개의 層階」를 간주하여 초기 시 범주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불어 박인환은 본인 스스로 「거리」를 등단작으로 동료 문인들에게 소개한 바 있다는 것을 근거로, 근래 발굴된 「斷層」뿐만 아니라, 종전 최초 발표작으로 「거리」도 『목마와 숙녀』 발표 및 수록작이 아닌, 초기 작품으로 인정해야 한다. 「斷層」의 경우 최초 발표작이

기는 하지만 『선시집』(산호장, 1955)에서는 초기 시의 범주로만 두었을 뿐, 박인환은 개작을 통해 ‘최초 발표작’의 권능을 상실시켰다.

본고는 지금까지 「거리」의 최초 발표설 재고찰하고, 「斷層」과 「不幸한 산송」 간의 비교 연구를 통해, 박인환의 시 세계 속에서 「거리」 및 「斷層」의 의미를 확보했다. 특히 「斷層」 개작 과정 중 7연 삭제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 요소의 감소를 주목하여, 박인환의 초기 시 또한 새 시대의 희망 노래하기 위한 예비적 전망을 품는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거리」에서도 시행 말미에 희망을 노래했듯이, 박인환의 초기 시는 절망과 우울뿐만이 아니라 도달할 수 없는 곳을 상징하고, 정작 그곳에 가지 못하는 시대의 ‘자유 정신’을 가시화했던 가편들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 참 고 문 헌

### 1. 자료

- 강계순, 『아! 박인환』, 문학예술사, 1983.
- 김광균 외, 『세월이 가면』, 근역서재, 1982.
- 맹문재 편, 『박인환 전집』, 실천문학사, 2007.
- 문승묵 편, 『박인환 전집- 사랑은 가고 과거는 남는 것』, 예옥, 2006.
- 박인환, 『목마와 숙녀』, 근역서재, 1976.
- 박인환, 『박인환 전집』, 문학세계사, 1986.
- 박인환, 『선시집』, 산호장, 1955.
- 엄동섭 · 염철, 『박인환 문학 전집 1』, 소명출판사, 2015.
- 윤석산, 『박인환 평전- 지금은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영학, 1983.
- 이동하, 『박인환 평전-木馬와 淑女와 별과 사랑』, 문학세계사, 1986.

### 2. 논저

- 김광균, 「마리서사 주변」, 『세월이 가면』, 근역서재, 1982.
- 김수영, 「마리서사」, 『김수영 전집2』, 민음사, 1981.
- 김용성, 「박인환」, 『한국현대문학사탐방』(제판), 국학자료원, 2011.
- 노승욱, 「박인환 시에 나타난 도시적 서정성 연구」, 『도시인문학연구』 3(1),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2011.
- 라기주, 「박인환 시에 나타난 불안의식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46,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5.
- 박민규, 「문화, 교양, 자본 그리고 자유 : 초기 박인환의 이념적 모색과 시적 향방」, 『한민족문화연구』 61, 한민족문화학회, 2018.
- 박민수, 『한국현대시의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국학자료원, 1996.
- 박성준, 「해방기 박인환 시의 현실 인식 변모 양상- 「仁川港」, 「植民港의 밤」의 창작 배경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86,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20.

- 박슬기, 「박인환 시에서의 우울과 시간의식」, 『한국시학연구』 33, 한국시학회, 2012.
- 박지은, 「박인환 시의 불안, 죽음 의식과 이를 통한 시쓰기의 문제」, 『한국시학연구』 55, 한국시학회, 2018.
- 엄동섭, 「해방기 박인환의 문학적 변모 양상」, 『어문론집』 36, 중앙어문학회, 2007.
- 염철, 「박인환의 최초 발표작 「斷層」에 대하여」, 『우리문학연구』 40, 우리문학회, 2013.
- 정우택, 「해방기 박인환 시의 정치적 아우라와 진항의 반항」, 『반교어문연구』 32, 반교어문학회, 2012.
- 조병화, 「나를 부르는 소리」, 『박인환 전집』, 문학세계사, 1986.
- 조봉건, 「“故박인환 시인 등단경로 재조명 돼야”...맹문재 시인 자신의 책서 주장」, 『국제신문』, 2008. 03. 25.
- 최라영, 「박인환 시에 나타난 ‘시적 무의미’의 범주들과 그 특성」, 『한국시학연구』 54, 한국시학회, 2018.

## 【Abstracts】

### Review of the Debut Works of Park In-whan

Park, Seungjun

The research on Park In-whan and his poems so far has resulted in considering his works as the transitional tendency, which contained the limitations of postwar modernism, including excessive sentimentalism, superficial affect, depression, and nihilism. While it is true that Park's poems of his early days generally showed "realistic political nature", discerning or appraising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Park's poems based on the poetic transformation of a limited period should be refrained from taking place. Moreover, reviewing Park's work with the context of a specific trend should also be put to an end.

It should also be reconsidered that no proper consensus has been reached in terms of the period classification of Park In-whan's literature. The necessity for finalizing the category of Park's early works especially exists in the specification of the time of Park's debut, which could be done through the comparison between the publication theory at "Gukjesinbo" and at "Jayusinmun".

This research attempts to secure the significance of 「A Street」 and 「A Fault」 in the poetic world of Park In-whan, through the review of the theory of the initial publication of 「A Street」, and through the comparison study between 「A Fault」 and 「A Chanson of Misfortune」. Park In-whan himself had introduced 「A Street」 to his fellow writers as his debut work. In case of 「A Fault」, although it was the first published work, Park put it within the category of his early works in 『Seonsijib』 (Sanhojang, 1955), and made it lose its authority as the "first published

work” through adaption.

The reduction of the anxiety factor, which occurred due to his elimination of verse 7 during adaption, should be paid special attention. Just as 「A Street」 ended with hope, Park’s earlier works can be appraised as the poems that presented not only despair and depression, but also the places that can not be reached, and that materialized the “spirit of freedom” of the people of the period with unreachable places.

**Key words** : Park In-whan, 「A Fault」, 「A Chanson of Misfortune」, 「A Street」, period distinction theory

이 논문은 2020년 02월 15일에 투고되었으며, 2020년 03월 17일에 심사 완료되어 2020년 03월 1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